

'94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동향과 전망

박재인/본회 진흥이사

1. '93년 전자산업 동향

1) 개황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생산 성장률은 '92년 7.5%에서 '93년 8월 현재 9.8%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중국, 일본 등의 특수, 내수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등의 양상을 보였다. 공급측면에서는 엔화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다소 회복, 신제품 개발 및 우리 상품의 품질 향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 수출은 8월까지 약 144억 달러로 전년대비 7.4% 증가 했는데 시장별로는 EC·아시아지역이 저조한 반면 북방·일본지역은 호조를 중남미·북미시장은 평균 수

준이며 분야별로는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용전화기 등의 산업용 기기와 반도체의 DRAM 등이 호조를 보였다. 시판은 '92년 2.0%에서 '93년 8.2% 증가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대형화, 고기능화),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용전화기 등의 수요증가, 엔고로 전자 부품의 로칼수출증대 및 산업용기기의 호조에 따른 정밀부품의 수요증가로 기인된다. 수입은 '92년 3.6%에서 '92년 1.9%로 둔화됐는데 이는 엔화 상승 등으로 국산 개발 대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 월별 경기동향

전자산업 생산은 6월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출은 6월 이후 수출증가세가 주춤하는 상태를 나타냈다. 시판은 2월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3) 부문별 수출동향

전자산업부문별 수출동향은 6월 이후 침체, 9월에는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다. 가정용기기 부문에는 엔고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로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2~7월)를 보였으며 8월 이후 일본의 동남아 현지공장의 물량증가와 국내업계의 신모델로의 기종변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산업용기기 부문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여온 휴대용전화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호조가 지속됐으며 7월 이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품 부문에는 반도체의 생산구조

구 분		'92년(1~12월)		92년(1~8월)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생 산	10억원	26.080	7.5	18.716	9.8
수 출	백만불	20.683	7.0	14.408	7.4
시 판	10억원	6.977	2.0	4.563	8.2
수 입	백만불	11.650	3.6	7.827	1.9

월별 경기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산	5.7	11.8	11.2	15.9	12.4	7.7	7.0	5.3
수출	1.9	18.3	9.1	13.1	10.2	1.4	4.8	2.3
시판	6.5	7.8	7.5	5.3	7.6	8.4	15.4	7.5

부문별 수출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자전체	1.9	18.3	9.1	13.1	10.2	1.4	4.8	2.3	11.5
가정용	-12.7	4.8	7.5	7.3	13.0	14.0	9.7	-0.2	3.5
산업용	34.3	44.7	28.3	39.3	28.2	16.0	8.2	6.8	12.6
부품	-1.1	16.3	3.1	6.6	2.0	-9.7	0.9	2.1	16.5

조정, 자기테이프의 세계시장정체, CPT의 현지 생산확대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4) 지역별 수출동향

전자산업의 지역별 수출동향을 보면 북미시장(35%비중)은 모니터, 휴대용전화기 등 산업용기기의 수출 주도로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구시장(17%비중)은 EC 경제회복 지연 및 통화약세, 재고누적 등으로 1.2%증가했으며 북방지역(중국, 동구)은 소련 등 동구지역의 신규 수요증가, 중국은 산업화의 추진으로 급성장, 작년대비 87.0%증가의 호조를 보였다. 아시아(33%비중)는 최근 외

국인투자 급증, 시설 확충, 대 일본은 엔화 상승으로 인한 수출이 13.2% 증가세를 보였다. 중남미(6%비중)는 경제성장 및 시장확대로 우리수출이 10.0% 증가했다. 중동(2%비중)은 에어컨 등의 수요지속으로 11.4% 증가했다.

5) 품목별 동향

① 가정용기기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생산 6.7%, 수출 5.6%, 내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TV는 해외 생산확대, 대형화, 고화질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으로 생산 12.5%, 시판 40.9%의 성장, 수출은 1.9% 감소했으며 VTR은 신시장

개척, 고기능 제품의 생산으로 생산 11.1%, 수출 13.8% 성장했다. 오디오는 수출주종품이었던 라디오 카세트가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으며, 컴포넌트 등 고가품이 호조를 보였고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카오디오 시판이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냉장고는 동남아, 중남미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 21.3%, 수출 17.8% 증가했다. 전자렌지는 식생활 문화에 맞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8.6%, 내수 8.2% 증가했으며 톱어콘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호조로 73.3% 증가, 시판은 23% 감소했다.

② 산업용기기

산업용기기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용전화기, 교환기 등의 수출호조로 생산 18.6%, 수출 24.7%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컴퓨터는 미국시장의 회복, 노트북 PC 등 고급기종의 보급증가로 생산 22.9%, 수출 22.7%, 내수 1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모니터는 기술 및 가격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수출 44.1%, 내수 21.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팩시밀리는 국내보급의 포화상태로 시판 13.8% 감소, 수출은 7.1% 증가했다. 무선전화기는 휴대용전화기의 수출 호조로 수출은 74.2% 증가의 호조, 내수는 12.6% 감소했다.

③ 전자부품

전자부품은 전체 부품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생산구조 조정으로 수출은 2.0%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용기기의 호조에 힘입어 내수는 11.8%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는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92년(1~12월)			'93년(1~9월)	
	수출액	구성비(%)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합계	20,683	100	7.0	16,386	7.9
북미	7,127	35	6.8	5,752	11.5
(미국)	(6,697)	(32)	(7.6)	(5,423)	(11.7)
서구	3,594	17	-7.4	2,676	1.2
북방	0	2	-32.8	574	87.0
아시아	6,776	33	16.6	5,340	2.7
(일본)	(1,738)	(8)	(-4.7)	(1,469)	(13.2)
중남미	1,322	6	25.8	1,251	10.0
중동	452	2	15.0	351	11.4
기타	1,012	5	8.8	442	3.0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가정용기기	5,996	6.7	4,077	5.6	2,304	5.9
C - T V	1,305	12.5	907	-1.9	459	40.9
V T R	976	11.1	846	13.8	196	-6.9
오 디 오	1,507	-5.2	1,221	1.8	382	-21.3
냉 장 고	700	21.3	226	17.8	521	16.2
세 탁 기	458	42.9	66	22.2	344	34.0
전 자 렌 지	444	6.6	429	8.6	69	8.2
룸 에 어 콘	179	-12.2	137	73.3	87	-23.0

주) 8월말 기준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산 업 용 기 기	3,887	18.6	3,202	24.7	1,232	7.6
컴퓨터(본체)	426	22.9	256	22.7	233	17.5
모 니 터	1,159	41.6	1,306	44.1	89	21.5
프 린 터	170	84.2	34	33.9	138	83.5
유 선 전 화 기	209	7.9	129	34.8	100	5.1
팩 시 밀 리	138	3.8	106	7.1	48	-13.8
무 선 전 화 기	12.8	-3.5	117	74.2	31	-12.6
교 환 기	303	-10.9	55	181.0	238	-21.0
계 측 기	63	-1.4	56	0.8	18	12.4

주) 8월말 기준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전 자 부 품	8,835	8.4	7,129	2.0	1,026	11.8
반 도 체	4,572	10.0	4,562	-0.2	251	22.2
음 극 선 관	1,045	4.3	553	-3.3	128	49.2
자 기 테 이 프	554	-1.6	546	1.8	98	-14.6
축 전 기	315	20.4	119	15.6	64	45.5
P C B	389	18.2	137	24.8	51	29.1
자 기 헤 드	252	53.1	164	-8.3	14	21.6
튜 너	151	-10.1	55	-19.0	11	-17.0
저 항 기	95	4.8	33	20.0	20	32.7

기존의 단순조립 생산체제에서 일괄 가공생산체제로의 생산구조 조정으로 수출 금액면에서는 0.2% 감소하였으나 채산성면에서는 호전된 것으로 예측됐으며 내수는 산업용기기의 호조로 22.2% 증가했다. CPT는 국내 모니터용 수요

증대로 국내 판매가 49.2%나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해외생산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3.3%로 감소했다. 자기테이프는 국내외 시장 모두 공급과잉으로 수출 1.8% 증가, 내수 14.6% 감소했다. 축전기는 고정밀 칩형 개발 생산으로 수

출 15.6%, 내수 45.5% 증가를 나타냈다. PCB는 다층화, 표면장착기술 대응 등으로 수출, 내수 다같이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자기헤드는 오디오용 등 저가제품 경쟁력 약화로 수출 8.3% 감소, 산업용 자기헤드는 국내 HDD 수요증대로 국내 판매는 크게 증가했다.

6) 경쟁국의 전자산업 동향

① 일본

일본의 전자산업은 국내외 경기 불황, 엔화의 상승,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8% 감소, 수출도 5.2%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가정용기기가 해외 생산확대, 엔화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생산 16.4% 감소, 수출도 23.5% 감소했으며, 산업용기기는 내수 경기위축으로 생산 6.9%, 수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수출은 반도체 등이 주도해 2.7% 증가했으나 생산은 9.0% 감소했다.

② 대만,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의 7월까지 전체 산업은 우리나라가 6.0% 증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17.3%보다는 낮지만 대만의 4.7%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자산업은 우리나라의 8.1% 증가세는 싱가포르의 28.2%보다는 낮지만 대만의 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규모 면에서도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가정용기기는 우리나라와 싱가폴은 전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만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규모면에서는 대만, 싱가포르보다 우위에

(단위 : 억엔)

구 분	생산(1~8월)		수출(1~8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자공업	136,623	-10.8	69,842	-5.2
가정용기기	19,852	-16.4	11,523	-23.5
C - T V	4,709	-11.8	1,183	-17.0
V T R	3,974	-16.7	2,994	-29.6
자동차용오디오	2,455	-0.8	1,226	-10.5
산업용기기	64,663	-6.9	22,454	-5.2
코드레스폰	1,192	7.1	501	-13.4
F A X	2,451	-9.5	1,511	-10.7
컴퓨터본체	14,757	-12.5	2,275	34.9
전자부품	52,108	-9.0	35,865	2.7
I C	18,348	0.8	9,177	12.2
C P T	4,507	-0.7	2,444	-3.2
축전기	3,375	0.8	1,284	11.5

(단위 : 백만불,%)

구 분	한국		대만		싱가폴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율
전 산업	45,642	6.0	48,975	4.7	41,290	17.3
전자산업	12,623	8.1	13,220	5.9	19,426	28.2
가정용기기	3,549	6.5	1,144	-13.6	2,935	4.5
산업용기기	2,831	27.5	6,978	1.7	9,703	34.7
전자부품	6,243	2.0	5,098	18.5	6,788	31.9

[자료 : 각국의 무역통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기기는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27.5%의 높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34.7%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규모면에서는 대만, 싱가포르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은 엔화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의 낮은 증가에 그친 반면 대만, 싱가폴은 상

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 '94년 전자산업 전망

1) 개황

'94년의 전자산업 경기는 금년보다는 호전될 전망이다 그 시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다. 즉 '94년의 경기는 금년보

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업체가 전체의 63%인데 비해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는 4%였다. 호전의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업체가 10%인데 비해 다소 호전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업체가 86%로 나타났다 호전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호전의 요인으로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회복이 35%, 업계의 신제품개발 등 품질고급화의 결과가 31%, 내수시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업체가 17%, 신시장 개척 등으로 인한 신규수요의 창출 등이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악화요인으로는 세계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의한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 잠식 등으로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장여건 및 전망

미국시장은 엔고로 일본제품 수입감소가 예상되지만 월드컵 특수기대로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다. 호조 예상품목으로 휴대용전화기, 반도체, 모니터, PCB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요인은 엔고로 인한 경쟁력 확보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오디오, VTR, C-TV 등으로 현지 시장가격 하락이 저조 요인으로 나타났다.

EC시장은 과거부터 추진해온 Eureka, Esprit, RACE 등 연구프로그램들이 가시적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환경보호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이 가장 큰 독일은 설비투자 부진, 민간소

구 분	'94년		상반기		하반기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 호전	27	10	21	8	32	12
대체로 호전	141	53	127	48	151	57
별변화 없음	87	33	101	38	77	29
대체로 악화	10	4	16	6	5	2
크게더 악화	-	-	-	-	-	-
합 계	265	100	265	100	265	100

구 분	호조예상품목	부진예상품목
미국 시장	- 휴대용전화기 - 모니터 - 반도체 - PCB	- 오디오 - VTR - C-TV
EC 시장	- 모니터 - 위성방송수신기 - 콤포넨트 - PCB	- 카오디오 - 테이프
일본 시장	- 오디오 - PCB - 반도체	- 자기테이프
기타 시장	- 반도체 - 수정진동자 - 콘덴서 - 콤포넨트	- 스피커시스템 - 카오디오

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호조 예상품목으로는 모니터, 위성방송 수신기, 콤포넨트, PCB 등으로 그 요인은 EC통합으로 인한 현지 정보통신시장 확대, 엔화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며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카오디오, 테이프 등으로 EC시장의 수요정체, 무역장벽 등을 그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본시장은 엔화상승 진정, 수입규모 확대 및 촉진, 해외 직접투자 및 생산거점 이전 촉진, 반도체 시장 외국산 비중의 상승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조 예상품목으로는 오디오, PCB, 반도체 등으로 그 요인은 엔화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며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자기

테이프 등으로 수요감소, 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된다. 기타시장(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은 호조가 능 품목으로 반도체, 수정진동자, 콤포넨트, 콘덴서 등을 들었는데 이는 현지 수요확대 등이 그 요인이며 부진예상 품목으로는 스피커 시스템, 카오디오 등으로 중국의 해외진출, 동남아산의 품질향상이 주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3) 전자산업 수급 전망

전자산업의 생산은 '93년에는 엔화의 상승과 산업용기기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10.8% 증가한 28조 8,900억원으로 추정되며 '94년에는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여 12.0%가 증가한

의 확대로 작년보다 8.6% 증가한 약 225억불로 예상되며 '94년에 32조 3,500억원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93년의 수출이 엔화의 상승과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은 첨단 신제품의 본격적인 출시와 고기능 위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년보다 11.9% 증가한 약 251억불로 전망된다.

로컬수출에서 '93년은 작년보다 11.3%가 증가된 36억 8,000만불로 예측되며 '94년에는 산업용기기의 수출호조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로 금년보다 12.5%정도 증가한 41억 4,000만불로 예상된다.

시판은 '93년은 작년보다 10.0%가 증가되어 국내 판매액은 7조 6,800억원으로 추정되며 '94년에는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정보화 사회의 진전,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금년보다 9.8% 성장한 8조 4,300억원으로 전망된다.

4) 분야별 생산, 판매 전망

① 가정용기기

가정용기기는 해외 생산 및 한국형 가전제품의 확대, 첨단 신제품의 본격적인 출시로 생산 4.9%, 수출 4.7%의 성장이 예상되며 내수는 '93년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여 6.9%의 증가가 예상된다. C-TV는 대형화, 고화질, 고선명화 등의 고부가가치화로 생산은 1.3%, 내수는 6.2%의 성장이 예상되나 중국 및 동남아산의 저가공세로 수출은 1.3% 감소가 예상된다. VTR은 아시아, 중남미 등의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EC 등 시장규모가 큰

구 분		'92	'93	'94	증감율 (%)	
		(실적)	(추정)	(전망)	'93	'94
생 산	10억원	26,080	28,890	32,350	10.8	12.0
수 출	백만불	20,683	22,460	25,130	8.6	11.9
로 칼	백만불	3,305	3,680	4,140	11.3	12.5
시 판	10억원	6,977	7,680	8,430	10.0	9.8

* 주 : 적용환율('92년: 780원, '93: 810원, '94: 815원)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가정용기기	8,990	9,430	4.9	6,390	6,690	4.7	3,600	3,850	6.9
C - T V	2,002	2,029	1.3	1,565	1,545	-1.3	710	754	6.2
V T R	1,348	1,402	4.0	1,329	1,377	3.6	265	285	7.5
음향기기	2,260	2,420	7.1	1,910	2,040	6.8	573	614	7.2
전자렌지	670	717	7.0	650	720	10.8	119	126	5.9
냉장고	1,120	1,170	4.5	405	422	4.2	790	832	5.3
세탁기	680	728	7.1	110	130	18.2	590	625	5.9
에어콘	279	309	10.8	200	223	11.5	117	128	9.4

선진시장의 수요정체로 생산 4.0%, 수출 3.6%, 내수 7.5%와 증가가 예상된다. 음향기기는 디지털 및 A/V 복합제품으로의 전환과 고기능, 신제품의 출시, 신시장 개척 등으로 생산 7.1%, 수출 6.8%, 내수 7.2%의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렌지는 EC시장의 수요정체 등의 부진요인에도 불구하고 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동남아와 중남미의 수요증가, 한국형 개발 보급 등으로 생산 7.0%, 수출 10.8%의 증가가 예상된다.

② 산업용기기

산업용기기는 정보화사회 진전, 고급기종의 보급확대 등으로 생산은 17.0%, 내수는 12.3%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도 휴대용전화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1.3% 정도의 신장이 예상된다.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노트북 PC 및 모니터 등의 주변기기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미국시장이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생산 19.7%, 수출 20.3%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내수도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산업용기기	6,600	7,720	17.0	5,110	6,200	21.3	2,520	2,830	12.3
컴퓨터및 주변기기	3,560	4,261	19.7	3,268	3,931	20.3	910	1,050	15.4
유무선전화기	516	623	20.7	380	463	21.8	189	220	16.4
팩시밀리	277	330	19.1	170	215	26.5	130	143	10.0
계측기기	95	109	14.7	85	100	17.6	26	30	15.4
교환기	420	435	3.6	83	106	27.7	350	333	-4.9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93	'94	증감율
전자부품	13,300	15,200	14.3	10,960	12,240	11.7	1,560	1,750	12.2
반도체	6,980	8,370	19.9	7,020	7,860	12.0	390	445	14.1
C P T	1,640	1,787	9.0	860	930	8.1	195	224	14.9
자기테이프	825	868	5.2	800	877	9.6	140	150	7.1
P C B	584	700	19.9	210	269	28.1	79	87	10.1
자기헤드	510	581	13.9	250	268	7.2	21	23	9.5

486 등 고급기종의 보급확대 및 정보화사회 조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무선 전화기는 휴대용전화기의 수출 호조지속, 국내시장의 수요확대로 생산 20.7%, 수출 21.8%, 내수 16.4%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팩시밀리는 저가 보급형 개발 등으로 수출은 26.5%, 내수는 1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전자부품

전자부품은 '94년에는 생산 14.3%, 수출 11.7%의 증가가 예상되며 내수도 1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단순조립에서 가공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고부가치 제품으로의 생산구조 조정과 16M DRAM의 본격 출하로 생산 19.9%, 수출 12.0%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며 내수시장도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14.1%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CPT는 모니터의 수출 호조, C-TV의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생산 9.0%, 수출 8.1%, 시판 14.9%의 증가가 예상된다. 자기테이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세계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 5.2%, 수출 9.6%, 내수 7.1%가 증가가 예상된다.

5) 투자전망

'94년 전자산업의 총 투자액은 '93년보다 27.6%가 증가된 4조 7,920억원이 될 것이며 시설투자는 생산라인 증설, 자동화 등으로 작년보다 27.4% 증가된 3조 7,890억원, 기술개발 투자는 28.4%가 증가한 1조 30억

(단위 : 억원)

구 분	'93	'94	증감율(%)
총 투자액	37,557	47,920	27.6
시설투자	29,747	37,890	27.4
기술개발투자	7,810	10,030	28.4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LCD, CPT, 리드프레임 등 핵심부품이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분야에서의 라인 증설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수출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냉장고, 이동통신기 등의 공장증설 등이 예상된다.

부문별 투자전망을 보면 총투자의 81.4%인 3조 840억원을 전자부품 부문에 투자할 전망이다. 이는 대형투자가 소요되는 반도체, LCD 등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이 대부분을 차지, 산업용은 칼라모니터의 수요증가로 인한 생산라인의 확대, 이동통신, 워크스테이션 등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가정용 기기는 캠코더 등의 첨단제품 및 생산라인의 자동화 등에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시설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93	'94	증감율
시설투자계	29,747 (100)	37,890 (100)	27.4
가정용	4,170 (14.0)	4,830 (12.7)	15.8
산업용	1,602 (5.4)	2,220 (5.9)	38.6
전자부품	23,975 (80.6)	30,840 (81.4)	28.6

기술개발 투자의 경우 자체개발 투자는 '93년 보다 33.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6.2% 증가할 것으

(단위 : 억원)

구 분	'93	'94	증감율(%)
기술개발투자계	7,810	10,030	28.4
자체개발투자	6,454	8,590	33.1
기술도입	1,356	1,440	6.2

로 보여 과거 해외의존에서 탈피해 갈 전망이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사내 유보자금 등 내부자금 조달이 38%,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이 29%, 정부지원자금의 이용이 26%로 조달자금의 93%를 차지할 것이다.

투자자금 조달방법

구 분	조사업체	비중(%)
사내 유보자금 등 내부자금	101	38
일반 금융기관 차입	77	29
정부지원 자금	69	26
벤처 개발	11	4
기 타	7	3
계	265	100

투자자금 조달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지원자금 규모 부족이 53%, 정책자금 이용의 절차복잡이 23%,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인한 담보부족이 18% 순으로 조사됐다.

자금조달시 애로요인

구 분	조사업체	비중(%)
정책 지원자금의 규모 부족	140	53
정책자금 이용절차의 복잡	61	23
자체 재무구조의 취약	48	18
기 타	16	6
계	265	100

구 분	'93년			'94년 (C)	증감율 (C/B)(%)
	계획 (A)	실적 (B)	B/A (%)		
신규고용	138	137	99	133	-3.0
연구개발직	19	19	-	20	5.3
생산근로직	80	78	98	78	-
기 타	39	40	103	35	-12.5

투자애로요인으로는 시설투자의 경우 세계경기 및 국내의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부재가 53%, 자금조달 곤란이 29%, 수요부진 7%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투자시 애로요인

구 분	조사업체	비중(%)
경기 불투명	140	53
자금조달 곤란	77	29
수요부진	19	7
수익성 저하	16	6
기 타	13	5
계	265	100

기술개발 투자의 경우 투자자금 부족이 4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시장 불확실로 인한 기술개발 목표의 설정곤란 31%, 기술정보 부족 9%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투자시 애로요인

구 분	조사업체	비중(%)
투자자금의 부족	125	47
시장불확실로 인한 기술개발 목표의 설정 곤란	82	31
기술정보, 설정 곤란	24	9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미비	13	5
기타	21	8
계	265	100

6) 인력수급동향 및 전망

'93년의 전자산업 인력수급은 당초계획 13만 8,000명의 99%인 13만 7,000명을 고용했으며 연구개발직은 당초 계획대로 1만 9,000여명을 고용하였으나 생산근로직은 당초 계획인 8만여명의

(단위 : 천명)

98%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에 신규고용은 '93년의 실적보다 3% 감소된 13만 3,0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특히 연구개발직은 금년보다도 5.3%나 증가된 2만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나 생산근로직이나 기타 직종은 현상유지 내지 감소할 전망이다.

인력확보상의 애로요인은 부족한 생산기능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을 통한 양성공급 확대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동화 지원을 통한 대응이 전체의 20%, 주부 등 유휴인력 활용 지원이 20%, 병역특례 지원 확대가 17%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직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요구가 전체의 63%, 다음은 기술분야별 전문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공급확대가 28%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업원 부족률

구 분	조사업체	비중(%)
미부족	4.8	18
5% 미만 부족	132	50
5%~10% 미만 부족	48	18
10%~15% 미만 부족	32	12
15% 이상 부족	5	2
계	265	100

7) 해외투자 전망

해외 투자 전망은 '93년에는 39건에 2,719억원의 해외 투자를 한것으로 조사되었으나 '94년에는 43건에 1,9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인다. 가정용기기 업체는 '93년에 7건 975억원에서 '94

(단위 : 억원)

구 분	'93년		'9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자산업	39	2,719	43	1,964
가정용 기기	7	976	8	542
산업용 기기	14	159	17	492
전자부품	18	1,585	18	930

	'93년		'9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자산업	39	2,719	43	1,964
아시아	26	554	32	1,327
미국	8	63	4	132
EC	3	1,322	4	318
중남미	-	-	2	156
북방	2	780	1	31

년에는 8건 542억원, 산업용기기 업체는 '93년에 14건 159억원이었으나 '94년에는 17건 492억원, 전자부품 업체는 '93년에 18건 1,58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94년에는 18건 9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요인으로는 값싼 노동력 확보가 전체의 53%, 다음은 신시장 개척 28%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우회 수출기지 활용이 10%,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이 9%이고, 지역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93년 26건에 554억원에서 '94년 32건에 1,3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 경영수지 전망

성장면에서 '94년의 전자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93년의 11.6%보다 상향 조정된 13.1%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상품의 품질향상, 엔고 등으로 인한 수출여건 호전과 내수경기 회복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면에서는 전자업체의 수익성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다기능 복합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94년의 당기순이익률은 1.2%로 '93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단위 : %)

구분	'93년	'94년
매출액증가율	11.6	13.1
당기순이익률	0.8	1.2